

이슈페이퍼 2017-15

취업모 가구의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출 실태 및 정책적 요구

최 효 미 | 부연구위원

1. 서론
2. 취업모 가구 영유아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실태
3. 취업모 가구 영유아의 교육·보육비용 지출 실태
4. 취업모 가구 영유아의 교육·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
5. 결론 및 정책 제언

취업모 가구의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출 실태 및 정책적 요구*

최효미 | 부연구위원

요약

- 취업모 가구 영유아는 미취업모 가구에 비해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 비중이 높고, 하루 평균 이용 시간도 1시간가량 긴 것으로 나타남.
- 취업모 가구 영유아는 복수의 교육·보육서비스를 병행하여 이용하는 비중이 높으며, 시간제 사교육서비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학습지 이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취업모 가구의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총 교육·보육비용은 지출아동 기준 25만3천원으로 미취업모 가구에 비해 약 5만원가량 많이 지출하였으며, 개별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비용 지출이 커지는 양상을 보임.
-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추가 이용의사는 취업모 가구와 미취업모 가구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취업모 가구의 경우에는 가격 상승에 대해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 의사가 비탄력적인 특성을 보임.
- 취업모 가구의 경우 자녀 양육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의 오후 시간 보육에 대한 질 제고 및 하원 후 자녀 돌봄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돌봄 서비스 지원이 요구됨.

1

서론

가. 문제 제기

- 정부는 유아교육법(제24조) 및 영유아 보육법(제34조)에 무상 유아교육·보육을 명시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영유아 연령 및 가구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교육·보육비를 지원하고 있음(교육과학기술부, 2013: 3; 보건복지부, 2013: 9).

* '최효미·김길숙·이동하·임준범(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V). 육아정책연구소'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음.

- 정부의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의 목표는 일차적으로 영유아 가구의 자녀 양육에 따른 가계 부담 완화라고 볼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출산율 제고, 일·가정 양립 지원, 동등한 교육·보육기회 보장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보건복지부, 2013).
- 유아학비·보육료의 보편적 지원 이후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오히려 역효과가 크다는 주장이 일고 있음.
 - 특히, 유아학비·보육료의 보편적 지원 이후 모든 영유아 가구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수요가 급증하면서, 취업모와 같은 실수요자의 이용이 제한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보건복지부, 2013:15; 민연경·장한나, 2015:111).
- 취업모 가구 영유아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실태 및 이용 시간, 지출 실태 등을 살펴봄으로써, 가구특성에 따른 차별적 요구에 부응하는 보육·교육서비스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이와 함께, 영유아 자녀를 둔 취업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교육·보육서비스 이용에 따른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함.

나. 실태조사 개요

-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및 이용비용에 관한 조사의 응답 표본은 1,312가구이며 가구 내 모든 영유아 자녀를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분석에 활용된 아동 표본의 수는 1,820명이었음.
 - 영유아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실태는 아동 단위 이용 실태 및 비용을 기준으로 산출하므로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총 1,820명임.
 - 응답자 중 모가 취업중인 경우가 703명(38.6%), 미취업자인 경우가 996명(54.7%)였으며, 휴직자인 경우가 113명(6.2%)였음.
 - 모의 취업상태를 취업-미취업으로만 구분하지 않고 휴직자를 별도로 구분한 이유는 이들이 현재 기준 부모 직접 양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취업자와 다른 특징을 갖는 반면, 향후 복직에 대비한 교육·보육서비스를 선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미취업자와도 다른 특성을 보이기 때문임.

2 취업모 가구 영유아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실태

가. 교육·보육서비스 조합방식별 이용 현황

- 취업모 가구의 경우 영유아의 교육·보육서비스로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 비중이 높으며, 특히 어린이집만 이용하는 경우가 36.5%로 높음.
- 취업모 가구의 경우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경우 2.8%에 불과하며, 어린이집만 이용하는 경우가 36.5%에 달했으며, 반일 이상 교육·보육 기관과 사교육을 병행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27.6%로 다음이었음.
- 반면, 전적으로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비중은 미취업모 가구의 경우 20.3%였으며, 모가 휴직중인 경우 28.0%였음.

〈표 1〉 교육·보육서비스 조합방식별 이용 비중

		단위: %(명)				
		취업모	휴직중	미취업모	비해당	전체
전적으로 부모가 직접 양육		2.8	28.0	20.3	0.0	13.8 (253)
	어린이집만 이용	36.5	31.1	29.9	18.6	32.5 (592)
단일	유치원만 이용	12.6	6.3	13.3	14.3	12.6 (229)
서비스 이용	반일제 이상 학원만 이용	0.7	0.5	2.6	0.0	1.8 (32)
	개별돌봄서비스만 이용	3.6	1.4	0.9	0.0	2.0 (36)
	사교육(시간제)만 이용	0.3	2.8	2.6	0.0	1.7 (31)
	기관 교육·보육(반일이상) + 사교육(시간제)	27.6	20.1	28.4	13.0	27.6 (501)
복수 서비스 이용	기관 교육·보육(반일이상) + 개별돌봄	9.9	8.4	1.6	13.0	5.3 (96)
	사교육(시간제) + 개별돌봄	0.3	0.0	0.1	0.0	0.2 (3)
	기관 교육·보육(반일이상) + 사교육(시간제) + 개별돌봄	5.7	1.5	0.3	41.1	2.7 (47)
$\chi^2(df)$		286.7(27)***				
계(수)		100.0 (703)	100.0 (113)	100.0 (996)	100.0 (8)	100.0 (1,820)

주: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값임.

자료: 최효미 외(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Ⅳ)의 영유아 부모 대상 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산출
*** $p < .001$

- 교육·보육서비스 조합방식별 하루 평균 총 이용시간을 살펴보면, 취업모들은 미취업모 혹은 휴직중인 경우에 비해 기관 이용 시간도 길었음.
 - 취업모의 경우 하루 평균 교육·보육서비스 총 이용시간이 7.9시간으로, 미취업모 6.8시간에 비해 1.1시간가량 긴 것으로 나타남.
 - 취업모 기준 이용 기관에 따라서는 어린이집만 이용하는 경우와 유치원만 이용하는 경우에 평균 8시간을 이용하였으며, 기관 교육·보육서비스와 사교육을 병행하는 경우와 개별돌봄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8.2시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됨.
 - 한편, 기관 교육·보육과 사교육, 개별돌봄서비스를 모두 조합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9.5시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근로시간으로 인해 장시간 자녀돌봄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경우 하나의 기관을 길게 이용하기 보다는 다양한 서비스를 조합하여 이용하는 양상을 보임.

〈표 2〉 교육·보육서비스 조합방식별 총 이용 시간(하루 평균)

단위: 시간

		취업모	휴직중	미취업모	비해당	전체
전체		7.9	6.7	6.8	8.6	7.3 (1,567)
단일 서비스 이용	어린이집만 이용	8.0	6.9	7.0	8.7	7.4 (592)
	유치원만 이용	8.0	5.1	6.9	8.0	7.3 (229)
	반일제 이상 학원만 이용	6.6	5.8	5.6	-	5.8 (32)
	개별돌봄서비스만 이용	2.1	2.0	1.2	-	1.9 (36)
	사교육(시간제)만 이용	0.4	0.4	0.6	-	0.6 (31)
복수 서비스 이용	기관 교육·보육(반일이상) + 사교육(시간제)	8.2	7.3	7.2	7.9	7.6 (501)
	기관 교육·보육(반일이상) + 개별돌봄	8.2	8.5	8.6	8.5	8.3 (96)
	사교육(시간제) + 개별돌봄	3.1	-	2.3	-	2.9 (3)
	기관 교육·보육(반일이상) + 사교육(시간제) + 개별돌봄	9.5	6.6	7.6	9.1	9.2 (47)
<i>F</i>		66.1(8) ^{***}	14.6(7) ^{***}	123.2(8) ^{***}	83.3(4) ^{**}	

주: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값임
 자료: 최호미 외(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Ⅳ)의 영유아 부모 대상 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산출
^{***} $p < .001$, ^{**} $p < .01$

나. 반일제 이상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현황

- 좀 더 구체적으로 반일제 이상 교육·보육기관 이용 비중을 살펴보면, 취업모는 미취업모 혹은 휴직자에 비해 반일 이상 서비스 이용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았음.
 - 취업모의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가 59.9%, 유치원 이용자 30.4%인데 반해, 미취업모의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중이 42.7%, 유치원 이용 비중 28.1%였으며, 반일 이상 기관 이용 미이용자가 23.9%에 달함.
 - 이처럼 취업모의 경우 미취업모에 비해 어린이집 이용 비중이 현격히 높은 것은 영아 자녀의 기관 이용 비중의 차이 때문으로 판단됨.

〈표 3〉 반일제 이상 교육·보육 기관 이용 비중

단위: %(명)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반일이상 기관 미이용	계(수)	
전체	49.9	28.2	4.2	17.8	100.0 (1,820)	
모 취업 상태	취업	59.9	30.4	2.7	7.0	100.0 (703)
	휴직	51.2	13.8	2.8	32.2	100.0 (113)
	미취업	42.7	28.1	5.4	23.9	100.0 (996)
	비해당	57.8	42.2	0.0	0.0	100.0 (8)
$\chi^2(df)$	121.8(9)***					

주: 1)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값임.

자료: 최효미 외(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Ⅳ)의 영유아 부모 대상 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산출

*** $p < .001$

- 반일 이상 교육·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취업모의 경우 미취업모 혹은 휴직자에 비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자에 비해 1시간가량 긴 것으로 나타남.
 - 어린이집 이용자의 평균 이용시간은 7.9시간이었으며, 유치원 7.8시간, 개별돌봄서비스 5.5시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 반일 이상 교육·보육서비스 하루 평균 이용 시간

단위: 시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개별돌봄 서비스
전체		7.4	7.2	5.6	5.2
모 취업 상태	취업	7.9	7.8	2.9	5.5
	휴직	6.9	6.0	6.0	3.5
	미취업	6.9	6.8	5.5	4.3
	비해당	8.1	7.9	-	5.8
<i>F</i>		42.6(3) ^{***}	22.3(3) ^{***}	1.73(2)	1.61(3)

주: 어린이집 이용자 908명, 유치원이용자 513명, 반일제 학원 이용자 76명, 개별돌봄서비스 이용자 181명에 대한 평균값이며,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값임
 자료: 최효미 외(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Ⅳ)의 영유아 부모 대상 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산출
^{***} $p < .001$

다. 시간제 사교육 이용 현황

- 취업모 가구의 경우 학습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20.7%로 가장 높았으며, 시간제 학원 13.5%, 개인 및 그룹지도 3.6%, 교구활동 2.9%, 통신 교육 0.8%였음.
- 미취업모 가구는 취업모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제 학원 이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5〉 시간제 사교육 이용 비중

단위: %

		시간제 학원	개인 및 그룹지도	학습지	교구활동	통신교육
전체		13.4	2.6	19.3	3.0	1.2
모 취업 상태	취업	13.5	3.6	20.7	2.9	0.8
	휴직	6.9	3.8	14.0	4.3	1.1
	미취업	14.1	1.8	18.7	3.0	1.5
	비해당	13.0	0.0	41.1	0.0	0.0
$\chi^2(df)$		4.27(3)	6.18(3)	4.18(3)	0.75(3)	2.11(3)

주: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값이며, 전체 응답자 대비 해당 서비스 이용자 비중임.
 자료: 최효미 외(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Ⅳ)의 영유아 부모 대상 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산출
^{***} $p < .01$

- 시간제 사교육 이용 시간을 살펴보면, 취업모의 경우에 모든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의 이용 시간이 미취업모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나, 기관 교육·보육의 부족한 시간을 사교육을 통해 보완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음.
- 취업모 가구 영유아의 시간제 학원 이용 시간이 평균 2.5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통신교육 3.6시간, 개인 및 그룹지도 1.7시간, 교구활동 0.8시간, 학습지 0.6시간 순이었음.

〈표 6〉 시간제 사교육 주당 평균 이용 시간

단위: 시간

	시간제 학원	개인 및 그룹지도	학습지	교구활동	통신교육	
전체	2.4	1.5	0.5	0.7	1.5	
모 취업 상태	취업	2.5	1.7	0.6	0.8	3.6
	휴직	3.5	0.9	0.5	1.0	0.5
	미취업	2.3	1.4	0.5	0.6	0.9
	비해당	1.0	-	0.7	-	-
<i>F</i>	2.40(3)	1.34(2)	1.60(3)	4.34(2)*	0.68(2)	

주: 시간제 학원 이용자 244명, 개인 및 그룹지도 이용자 47명, 학습지 이용자 350명, 교구활동 54명, 통신교육 22명에 대한 평균이며, 기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값임.

자료: 최효미 외(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Ⅳ)의 영유아 부모 대상 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산출
*** $p < .05$

3 취업모 가구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출 실태

가. 총 교육·보육비용

- 취업모 가구의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총 교육·보육비용은 지출아동 기준 25만3천원으로, 미취업모 가구 20만5천원에 비해 약 5만원가량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영유아를 포함한 평균 총 교육·보육비용은 취업모 가구의 영유아가 20만9천원으로, 미취업모 가구의 영유아 14만3천원에 비해 약 6만6천원을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출 비용의 분포를 살펴보면, 취업모의 경우 지출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7.6%에 그친 반면, 미취업모는 30.1%가 지출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음.

- 취업모 가구의 경우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 10만원 미만 지출한다는 응답이 32.9%로 가장 많았고, 10~30만원 27.7%, 50만원 이상 11.2%, 30~50만원 10.7% 순이었음.

〈표 7〉 가구 특성별 총 교육·보육비용(아동당 월평균비용)

단위: %(명), 만원

	없음	10 만원 미만	10~30 만원 미만	30~50 만원 미만	50 만원 이상	계(수)	평균비용	평균비용
							(미지출 포함)	(지출 아동)
취업모	17.6	32.9	27.7	10.7	11.2	100.0(708)	20.9	25.3
휴직자	45.0	29.5	11.4	5.6	8.5	100.0(106)	15.3	27.9
미취업모	30.1	29.3	25.7	8.7	6.3	100.0(1,003)	14.3	20.5
비해당	0.0	73.8	26.2	0.0	0.0	100.0(4)	6.2	6.2
$\chi^2(df), F$							8.1***	3.9*

주: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값임.
 자료: 최효미 외(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V), p.104. 〈표 IV-2-2〉에서 인용
 *** $p < .05$

나. 교육·보육서비스 종류별 지출 비용

- 취업모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 비용으로 월평균 6만원을 지출하고 있었으며, 미취업모는 7만원을 지출하였음.
- 취업모 중에서 시간 연장형 보육을 이용하는 경우는 매우 적지만, 이용 비용은 30만4천원으로 비교적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음.

〈표 8〉 모 취업상태별 어린이집 총 이용비용(아동당 월평균)

단위: %, (명), 만원

	이용비용(지출자 수)				총액기준 월평균비용
	정규 교육·보육비		선택적 교육비		
	보육료	기타비용	특별활동비	시간연장형보육	
취업모	3.8(36)	3.1(242)	5.3(150)	30.4(6)	6.0(293)
휴직자	1.9(3)	4.5(31)	6.6(17)	-	7.0(34)
미취업모	4.6(49)	3.3(292)	6.1(190)	-	7.0(339)
F	2.7	1.7	2.2	-	1.9

주: 1) 총액은 입학금 등 초도물품비는 제외한 보육료, 기타비용, 특별활동비, 시간연장형보육비 등을 포함하였으며, 기타 비용에는 현장학습비, 행사비, 차량운행비, 급간식, 특성화비, 교재교구비 등이 포함됨. 시간연장형 보육은 야간보육, 24시간, 휴일보육(본 조사에서는 주말보육) 등이 포함.
 2) 지출자 수는 해당 비용을 지불한 경우 응답자 수이며, 이용비용은 지출하는 경우의 평균임.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값임.
 자료: 최효미 외(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V), p.109. 〈표 IV-2-6〉에서 인용

- 취업모의 유치원 이용 비용은 총액 기준 월평균 18만9천원으로, 미취업모의 지출비용인 19만8천원에 비해 약간 적었음.
- 유치원의 경우에는 어린이집과 달리 수업료의 지출 비용이 취업모 14만9천원, 미취업모 16만3천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음.
 - 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 이용 비용은 취업모 8만1천원, 미취업모 8만4천원으로, 유치원 이용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용은 수업료에 비해 적지만,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에 비해서는 2~3만원가량 높았음.

〈표 9〉 모의 취업상태별 유치원 총 이용비용(아동당 월평균)

단위: %, (명), 만원

	이용비용(지출자 수)				총액기준 월평균 비용
	정규 교육비		선택적 교육비		
	수업료	기타비용	특성화 프로그램 이용비용	방과후 과정	
취업	14.9(88)	5.3(120)	8.1(96)	5.7(27)	18.9(162)
휴직	12.4(4)	6.6(5)	15.0(4)	-	21.9(7)
미취업	16.3(126)	5.4(164)	8.4(112)	6.7(23)	19.8(208)
<i>F</i>	1.3	0.2	2.9	0.6	0.5

주: 1) 총액은 입학금 등 초도물품비는 제외한 수업료, 기타비용, 특성화프로그램 이용비용, 방과후 과정비 등을 포함하며, 기타 비용에는 현장학습비, 행사비, 차량운행비, 급간식, 교재교구비 등이 포함됨.

2) 지출자 수는 해당 비용을 지불한 경우 응답자 수이며, 이용비용은 지출하는 경우의 평균임.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값임

자료 : 최효미 외(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V), p.115. 〈표 IV-2-13〉에서 인용

-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이용하는 비용은 취업모의 경우 월평균 66만2천원을 지불하는데 반해, 미취업모는 58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일제 이상 학원의 경우에는 다른 어떤 비용보다도 교육비가 전체 이용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이용하는 취업모 가구 영유아의 경우 교육비 평균이 미취업모 가구에 비해 높은 반면, 특별활동비 평균은 미취업모 가구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반일제 학원 이용자 수가 많지 않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요구됨.

〈표 10〉 모 취업상태별 반일제 이상 학원 총 이용비용(아동당 월평균)

단위: 개, 만원(명)

	이용비용				총액기준 월평균 비용
	교육비	기타 비용	특별 활동비	종일반비	
취업	53.0	11.4	7.6	7.0	66.2 (19)
휴직	61.7	34.8	41.0	0.0	102.4 (3)
미취업	48.1	10.5	17.5	0.0	58.0 (54)
<i>F</i>	0.3	6.8**	10.4**		2.1

주: 이용비용은 지출하는 경우의 평균임.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값임
 자료: 최효미 외(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Ⅳ)의 영유아 부모 대상 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산출.
 ** $p < .01$

- 취업모 가구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 비용은 월평균 시간제 학원 13만4천원, 개인 및 그룹지도 13만6천원, 교구활동 7만7천원, 학습지 7만2천원, 통신교육 6만2천원 순이었음.
- 시간제 사교육 이용비용은 사교육 종류별로는 모의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모가 휴직중인 경우에 오히려 시간제 사교육 이용비용이 약간 높은 특징을 보임.

〈표 11〉 모 취업상태별 시간제 사교육 총 이용비용(아동당 월평균)

단위: %, 만원(명)

	이용 비용					총액 평균	(수)
	시간제 학원	개인 및 그룹지도	학습지	교구활동	통신교육		
취업	13.4	13.6	7.2	7.7	6.2	12.0	(240)
휴직	14.5	20.4	7.8	10.4	0.0	14.1	(25)
미취업	13.2	10.5	6.4	11.9	4.3	11.7	(313)
$\chi^2(df), F$	1.7(2)	2.9(2)	2.35(2)	1.4(2)	1.7(2)	7.0(2)***	

주: 이용비용은 지출하는 경우의 평균이며,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값임
 자료: 최효미 외(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Ⅳ)의 영유아 부모 대상 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산출.
 ** $p < .01$

- 취업모의 경우 혈연도우미 이용비용이 53만8천원, 비혈연도우미 이용비용이 80만8천원으로, 혈연도우미 이용비용이 현저히 적음을 알 수 있음.
- 개별 돌봄 서비스 이용은 취업모가 미취업모에 비해 이용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음.

〈표 12〉 모 취업상태별 개별돌봄서비스 총 이용비용(아동당 월평균)

단위: %, 만원(명)

	혈연 도우미			비혈연 도우미			총액 평균	(수)
	평균 주당 이용일수	1일 평균 이용시간	월평균 비용	평균 주당 이용일수	1일 평균 이용시간	월평균 비용		
취업	5.0	5.4	53.8	3.9	6.7	80.8	54.8	(138)
휴직	5.1	4.1	112.4	1.0	2.0	3.0	71.1	(12)
미취업	4.2	3.1	51.1	2.4	9.1	70.0	59.5	(29)
F	4.3**	3.0*	5.3**	2.4	4.6*	1.2	0.5	

주 : 이용비용은 지출하는 경우의 평균임.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값임.

자료 : 최효미 외(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V), p.130. 〈표 IV-2-20〉에서 인용

** $p < .01$

4

취업모 가구의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에 대한 요구

- 현재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을 추가적으로 더 이용하고 싶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16.1%로, 취업모 가구와 미취업모 가구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취업모의 경우 현재보다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 시간을 지금보다 많이 늘리고 싶다는 응답이 2.7%, 조금 늘리고 싶다는 응답이 11.8%로, 미취업모에 비해 약간 적었음.
 -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늘리고 싶다는 응답은 모가 휴직 중인 경우에 높게 나타나, 많이 늘리고 싶다는 응답이 15.7%, 조금 늘리고 싶다는 응답이 13.4%에 달함.

〈표 13〉 가구 특성별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추가 이용시간 추가 의향(아동별 조사)

단위: %, (명)

	많이 늘리고 싶음	조금 늘리고 싶음	현행 유지	조금 줄이고 싶음	$\chi^2(df)$	계(수)
전체	4.0	12.1	82.6	1.2		100.0(1,421)
모의 취업상태						
취업	2.7	11.8	84.2	1.3	36.7(9)***	100.0(639)
휴직	15.7	13.4	70.9	0.0		100.0(69)
미취업	3.9	12.4	82.4	1.2		100.0(710)
비해당	39.2	0.0	60.8	0.0		100.0(4)

자료 : 최효미 외(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V), p.160. 〈표 V-2-3〉에서 인용

*** $p < .001$

- 현재 이용하는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비용이 얼마가 될 때까지 계속 보낼 의사가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취업모(52.8%)가 미취업모(44.1%)에 비해 얼마가 늘어나든 현재 기관을 계속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많았음.
- 유보가격을 응답한 경우에는 평균 5만7천원까지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모의 경우 5만7천원, 미취업모 5만5천원으로 금액 자체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다만, 모가 휴직중인 경우 유보가격이 8만원으로 다른 집단과 큰 차이를 보임.

〈표 14〉 가구 특성별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유보가격(아동별 조사)

단위: %, 만원(명)

	얼마가 늘어나든 현재 기관 계속 이용	유보가격을 응답한 경우					유보 가격 (평균)	계(수)
		5만원 미만	5~10만원 미만	10~15만원 미만	15~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전체	47.6	18.6	20.9	10.2	1.5	1.2	5.7	100.0(1,421)
모의 취업상태								
취업	52.8	16.6	20.3	7.8	1.8	0.6	5.7	100.0(639)
휴직	33.9	13.1	21.9	17.6	10.3	3.2	8.0	100.0(69)
미취업	44.1	21.0	21.4	11.6	0.3	1.5	5.5	100.0(710)
비해당	81.4	18.6	0.0	0.0	0.0	0.0	1.0	100.0(4)
$\chi^2(df), F$			71.3(15)***			5.9***		

주: 유보가격은 최대 지불 의사 가격 평균으로 얼마가 늘든 계속 이용한다는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임.
 자료: 최호미 외(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Ⅳ), p.165. 〈표 V-2-6〉에서 인용
 *** $p < .001$

- 유보가격 초과시 취업모는 저렴한 다른 기관으로 변경하겠다는 응답이 55.6%로 높은 반면, 미취업모는 이용시간을 줄이겠다는 응답이 42.1%로 매우 높음.

〈표 15〉 가구 특성별 유보가격 초과 시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계획(아동별 조사)

단위: %, (명)

	이용 시간을 줄임	저렴한 다른 기관으로 변경	다른 사교육 기관 이용	개별돌봄 서비스 이용	부모 직접 양육	$\chi^2(df)$	계(수)
전체	32.4	46.0	11.7	1.6	8.2		100.0(691)
모의 취업상태							
취업	23.8	55.6	8.1	3.0	9.5	56.1(12)***	100.0(277)
휴직	35.4	31.9	18.5	5.8	8.5		100.0(40)
미취업	42.1	37.3	10.9	0.6	9.1		100.0(372)
비해당	0.0	0.0	100.0	0.0	0.0		100.0(2)

주: 유보가격은 최대 지불 의사 가격 평균으로 얼마가 늘든 계속 이용한다는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임.
 자료: 최호미 외(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Ⅳ), p.169. 〈표 V-2-9〉에서 인용
 *** $p < .001$

5 결론 및 정책 제언

- 취업모 가구의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시간을 하루 평균 최소 8시간 이상 보장하고, 오후 돌봄 시간에 대한 서비스 질 제고 노력이 필요함.
 - 취업모 가구의 영유아는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 특성을 보이며, 이용비용이 유보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용 시간을 조정하기 보다는 저렴한 다른 기관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함.
 - 특히, 취업모 가구는 미취업모 가구에 비해 어린이집 이용 비중이 매우 높은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영아 자녀의 돌봄을 어린이집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음을 암시하고 있음.
 - 하지만, 취업모의 대다수는 현재 이용 시간인 8시간보다 기관 이용 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을 희망하지 않음.
 - 따라서, 맞벌이 가구 자녀에 대해서는 최소 8시간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고, 제공되는 8시간에 대해서는 서비스 질 제고가 요구됨.
 - 또한,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시차출퇴근, 탄력 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강화하여,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하원 후 아이를 부모가 추가적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의 강화가 필요함.
- 취업모 가구의 교육·보육비용에 대한 부담 완화와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서는 보다 저렴한 개별 돌봄 서비스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며,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돌봄 서비스 제공 등 서비스 다각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취업모 가구의 영유아는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하원 이후 개별 돌봄 서비스를 병행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비스 특성상 개별 돌봄 서비스 이용비용이 현격히 높음.
 - 일부 어린이집 혹은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운영시간 이후에도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장시간 기관 보육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거운 상태이며(김혜경·류왕효, 2006; 서문희·양미선, 2012; 송경섭, 2013 등), 정작 영유아 자녀가 있는 취업모 가정에서 해당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크지 않은 편임.
 -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경우에도 적정 소득 수준이상의 경우 비용 할인이 되지 않는데다 우선권이 주어지지 않아, 맞벌이 가구의 경우 이용이 용이치 않은 등의 한계가 있으므로, 제도 개선이 시급함(전춘애·이종남·방한별, 2009 등).

- 따라서, 공동육아 활성화 및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돌봄 서비스 지원 등 맞춤형 가구의 요구와 수요를 반영한 교육·보육서비스의 다각화가 필요한 시점임.

참 고 문 헌

교육과학기술부(2013). 유아학비지원계획.

김혜경·류왕효(2006). 시간연장 보육아동의 스트레스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45, 207-225.

민연경·장한나(2015). 보육정책의 이슈네트워크 분석 : 무상보육정책과 양육수당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18(1), 49-71.

보건복지부(2013). 제2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서문희·양미선(2012). 시간연장보육 이용 실태 및 수요 조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송경섭(2013). 어린이집 유형별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실태 및 보육교직원의 인식과 요구. 한국보육학회지, 13(2), 25-45.

전춘애·이종남·방한별(2009).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가정 실태 및 가정 유형에 따른 서비스 만족에 관한 연구-서울 거주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가정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3). 225-237.

최효미·김길숙·이동하·임준범(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V). 육아정책연구소.